

김기태 : 사회의 정의와 개인의 행복 ■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의 정의와 개인의 행복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김 기 태

목 차

- I. 서론
- II. 진리의 추구하고 성취
- III. 자유의 획득과 실현
- IV. 중용적 조화와 행복
- V. 결론

I. 서론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하기를 바라며 삶을 살아간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언제쯤이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빠른 답을 찾기 위해 선현들의 가르침을 살펴도 보고 동서양의 사상가들을 비롯하여 각종 종교에 의해 제창된 행복의 철학을 살펴보기도 한다. 그리고 행복한 삶에 대한 나름의 방안들을 생각해 본다. 그런데 행복이란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답이 나올 것이다. 명예나 경제적 부유, 사랑, 건강, 이상의 실현 등, 저마다 각자의 처지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

■ 김기태 : 사회의 정의화 개인의 행복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은 개개인이 느끼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행복에 대해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주장이 있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불행하다고 전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양 철학자 러셀은 불행의 원인으로 경쟁, 피로, 권태, 부질없는 죄의식, 피해망상, 여론의 횡포 등을 들고 있다. 이런 천차만별의 불행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러셀은 두 가지에서 온다고 본다. 하나는 사회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심리상태이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제도는 어떤 것들일까? 러셀은 “전쟁, 경제적 착취, 잔인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교육제도, 결혼제도” 등을 지적하고 있다. 러셀이 오늘날 교실 붕괴의 한국의 교육현장을 보았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오로지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에서 생기는 이기심과 경쟁심, 학력과 학벌위주의 사고, 획일화된 가치체계가 한국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러셀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 자본주의 또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난이 개인의 나태나 낭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구조와 제도에서 생기는 문제라면,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는 한국인이 불행하게 된 원인이다. 그리고 평등과 무계급 사회를 이념으로 내세운 공산주의체제도 결국 체제의 비효율성과 상호 감시체제에 의한 인간성 파괴라는 결과를 가져온 불행한 제도이다. 러셀은 이혼조차도 도덕이라는 속박에 얽매어 인간을 죄의식에 빠뜨리게 된다고 보며, 결혼제도 자체를 부도덕한 인간들의 제도로 파악하고 있다. 또 자유로운 사랑법에 익숙한 신세대 또는 이른바 ‘신유목민세대’에게 1부 1처제의 결혼제도는 더욱 이들을 속박하는 제도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비해 동양에서는 개인의 행복이 개별적 생활에서 사회 공통적 행복은 제도에 의한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얻게 된다고 한다. 개인의 행복에서 질과 양이 보편화될 수 없지만 사회적 행복에서

김기태 : 사회의 정의화 개인의 행복 ■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는 구성원의 공통적 질서에 의해 행복의 질과 양이 정해질 수 있는 것으로 사회가 안정되면 개인의 행복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말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모든 사람은 공통된 도덕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에 대한 자유와 평등함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사람의 평등함의 기준을 동양에서 사람의 천부적 인성에 두었고, 공자의 인(仁) 사상을 중심으로 한 유가사상이 삶의 행복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전국시대의 복잡한 사회상은 요순(堯舜)시대에서 펼쳐졌던 태평성대의 정치제도를 이상주의 사상으로 갈망했으며 행복함의 구체적 내용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성론적 행복론을 제시하였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인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모든 덕성이 자기로부터 나오게 하도록 수신하여 먼저 가정을 이끌고 나라를 다스려 태평의 사회를 펼쳐 가는 군자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바로 행복한 생활이다. 공자가 주장한 군자는 이상화된 사람의 모습으로서 무한한 노력을 요구하는 지향적 개념이다. 즉 명을 바르게 알고 예를 바로 알며 말을 바르게 알아 행하는 사람이다.

동양사회는 계급사회의 구성에 따른 위계질서 본위의 덕목이 중요시되어 충, 효, 열, 우애, 신의 등의 생활계율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법률적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 모두는 사람의 인성에 근거한 덕목이며 군자의 자질을 갖추어 이러한 덕목을 실천하는 것에 최대의 행복이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동양의 가치와 행복론은 물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仁)과 예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수용하는 인본주의 또는 자연적인 온정주의를 실천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서양과 동양의 행복론을 비교하여,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진리의 추구하고 성취

■ 김기태 : 사회의 정의화 개인의 행복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과 행복을 구별한다. "행복이야말로 사람의 본성이 다스려야 할 궁극적 목적이다¹³⁾ ." 이러한 의미는 사람이 정신적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가 말한 행복한 사람은 지식 탐구를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즉 행복함을 제고하는 것은 지혜이고 지혜는 탐구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이 탐구는 사람의 고유한 기능이며 존재자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중용과 같은 가장 완전한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윤리학은 자족한 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고립에서의 자족이 아닌 가정과 사회와의 관계에서의 만족스러움이다.

그는 행복을 "하나의 상태가 아닌 삶의 과정에서의 활동이라 했고¹⁴⁾ " 활동에는 무엇을 위한 수단적 활동과 활동 그 자체가 바람직한 목적적 활동이 있는데 전자는 노동 운동 의료행위 같은 것이고 후자는 탐구와 관조이다. 그런데 행복 역시 그 자체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이지 어떤 것 때문에 바람직한 것들에 속하지 않는다. 즉 행복은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는 만족한 상태이며 그 자체 다른 무엇을 위한 활동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육체적 쾌락을 여가를 잘 선용하기 위한 수단이며 또한 다음의 일을 위한 휴식적 활동이라 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지식을 세 종류로 나누었다. 즉 "모든 사유가 실천적인 것 창작적인 것 이론적인 것일 때이다¹⁵⁾ ." 이론적인 지식은 다시 철학(수학) 자연과학 신학으로 분류된다.¹⁶⁾ 그의 지식론은 경험에서 시작된다. 자연과학에서 형이상학으로 넘어간다. 그는 모든

13) Aristoteles, S. 1176a; 박선목,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동서양의 행복론」, 『코기토』 제55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0, 315쪽 재인용.

14) Ibid. S. 1176b; 박선목, 앞의 논문, 같은 쪽.

15) Ibid. S. 1205b (Metaphysics VIII, 25); 박선목, 앞의 논문, 316쪽 재인용.

16) Ibid. S. 1026a; 박선목, 앞의 논문, 같은 쪽 재인용.

김기태 : 사회의 정의와 개인의 행복 ■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존재자에 대한 존재원인 즉 존재목적을 찾는 영역을 형이상학이라 하였는데 자연과학에서의 존재 목적은 그 존재의 기능을 뜻하는 것이라 했고 실천철학은 선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닌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학문이라 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덕(arte) 하였기에 그 기능들은 좋은 것 뛰어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덕을 가졌다. 덕을 갖추었다. 덕을 실천한다 함은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자신과 여러 사람을 위해 충분히 발휘한 상태이다. 이 상태가 바로 선의 상태이며 행복의 상태 그리고 중용의 상태인데 실천철학이 이러한 상태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 연구할 때 그의 행복론이 제기된다. 행복함(eudaimonia)은 탁월한 기능에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이다. 그런데 행복은 경험을 떠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경험적 쾌락주의로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행복은 경험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행복은 용기 관대함 선을 베푸는 것 정의로운 행위 위트 노력 등등의 현실적 행위에서 얻어진다. 이러한 행위는 이기심을 떠난 이성적 사유의 활동이며 덕을 실천하는 행위이다. 덕의 실천은 능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최고의 덕을 실천하려는 욕망을 가진다. 이것이 이성적 사유의 기능이며 이러한 활동에서 훌륭하고 고귀한 인품이 형성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성적 활동이 가장 고귀하고 순수한 활동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신적인 활동이라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신적인 기능을 활동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행복이라 했다¹⁷⁾. 이 신적인 기능의 활동은 인식론적 지식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는 데 이러한 활동을 관조적 활동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관조적 활동은 연속적 활동이며 최선 및 최후의 활동이며 가장 만족한 활동으로서 그것 이외의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가장 선한 활동이다. 이러한 관조적 활동을 하기 위해 조용한 사색이 요구되고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 인식적 활동이 이르는 최종의 곳이다.

17) Vgl. Ibid. S. 1177b; 박선목, 앞의 논문, 317쪽 재인용.

■ 김기태 : 사회의 정의화 개인의 행복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이러한 활동을 이성적 활동이라 한다. 행복은 정치적 활동을 포함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가정의 고유한 기능이 사랑과 화목의 위계질서라고 한다면 사람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에 바탕을 둔 삶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행복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신성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를 이성적 삶이라 한다. 플라톤에 있어서 가장 사람다운 행위가 사람의 이데아를 충분히 발휘한 삶이라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가장 사람다운 삶은 이 신성한 이성을 충분히 발휘한 상태이다. 사람은 일상적 삶에서 이성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경험적 삶에서 누리고 있는 행복은 차선 적 행복이며 상대적 행복이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 그것을 위해 사람들의 모든 기능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 반면 사람의 고유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 것에 삶의 가치를 둔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성적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는 것이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사회성을 중요시했다. 사회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국가에서 총괄된다. 사람은 삶에 있어서 가정과 국가를 피할 수 없더라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국가와 가정을 떠날 수 없다. 행복이 학습 습관 훈련에 의해 조성된다면 이것은 사회적 조건에 의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위해 가정과 사회가 가정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어린이의 바른 교육을 위해 가정에서는 바른 훈육 바른 습관 건전한 사고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바른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¹⁸⁾. 감수성이 순수하고 예민한 어린 시절부터 도덕적 의식과 생활을 하도록 하는 교육과 사회제도 및 자발성을 유도하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역할에 의해 어린 시절부터 바른 행위를 하려는 경향과 비뚤어진 행위를 하려는 경향으로 나뉜다. 그런데 행복의 계기는 정신적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의사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면 정치학자는 정신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정치적 활동의 영역이

18) Vgl. Ibid. S. 1179b; 박선목, 앞의 논문, 318쪽 재인용.

김기태 : 사회의 정의와 개인의 행복 ■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국가인 만큼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때 국가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입법자는 국민으로 하여금 자기행복과 사회적 행복을 위해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법을 제정하고 윤리적 의식을 높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선의 실천은 다른 사람 및 사회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선의 실천을 하도록 하는 가정과 국가만을 그들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가정과 국가가 개인과 사회적 행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개인적 행복의 조건은 육체와 정신의 조화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 보지 않고 영혼의 고유한 목적을 실현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보았다. 즉 육체적 활동의 영혼활동의 대변인이다. 정신의 활동은 원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목적적 활동으로서 보다 좋고 고귀하며 가치다운 행위로 지향하는 것인데 제일 높은 곳이 최고선(summum bonum)이다. 이 최고선은 현실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관조하는 상태, 이성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한 상태, 영혼의 활동에 가장 가까이 있는 상태이다. 그가 말한 행복이란 바로 이런 상태이다. 불교적 입장에서는 깨달음의 상태이다. 그가 말한 선은 다른 모든 것이 그것 때문에 행해지는 그러한 것이다. 선은 행위의 궁극의 목표이다. 또한 선이기 때문에 행위의 동기가 된다. 모든 행위가 추구하는 것의 목적은 선이며 가치이다.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궁극에 가서는 선으로 연결되는 행위이다. 물론 선의 반대는 악이다. 사실 모든 존재가 그들의 고유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 상태가 선이기에 선은 행위 앞 존재의 궁극의 목적이다. 존재가 선의 상태에 있는 것은 자연 질서의 제일 좋은 조건이고 사람의 행위가 선의 상태에 있는 것은 행복의 상태이다. 우리가 생활세계에서 덕목을 제시하여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덕목 자체가 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선한 행위의 연속이며 선한 행위의 총체성이다.

■ 김기태 : 사회의 정의화 개인의 행복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사실 행복의 상태는 천차만별이다. 나이별 지적 수준 성격의 차이에 따라 생활방식 다르며 이러한 생활방식에 따라 행복함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행복은 고립된 혼자 조용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여건에 따라 조성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사회적 조건이라 하더라도 개인적 삶의 형식에서 삶의 행복이 결정된다. 이와 같이 행복은 구체적 생활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사람다운 행위를 실천하는 데에 있다. 가령 남에게 믿음을 주는 행위 남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행위 항상 다른 사람의 가치다운 행위를 선택해 주는 행위 봉사하고 사랑하는 생활에서 행복이 만들어 지게 된다.

Ⅲ. 자유의 획득과 실현

몸과 마음의 조화에 의해서 행복이 이루어지듯이 육체적 행복과 관련되는 壽, 富, 康寧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富를 추구할 수 있는 물질은 제한되어 있고,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래 사는 부자라 하더라도 수명이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육체적인 행복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린다.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여기에 정신적 행복의 충족 조건인 攸好德과 考終命이 필요하게 된다.

‘攸好德’은 정신적인 건강 상태로 德을 좋아하는 일을 이른다. 德의원래 글자는 惠이니 곧음(直)과 마음(心)의 합체어이다. 따라서 德의 뜻은 ‘천부적 본성이 어떠한 영향에 의하여 왜곡되거나 굴절됨이 없이 곧고 바르게 발휘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된다. ‘곧게 바르게 발휘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란 마음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천부적 본성이 어떠한 영향에 의해 굴절되거나 왜곡됨이 없이 곧고 바르게 발휘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의미한다.¹⁹⁾ 자식을 향하는 부모의 마음은 천부적 본성 그대로 곧고 바르게 실현

김기태 : 사회의 정의화 개인의 행복 ■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마음 아파하고 진심어린 격려를 해 준다. 설령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상을 찡그리거나 싫어하지 않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식을 돌보게 되며, 자식의 기쁜 일에 대해서는 자식 이상으로 기뻐해준다. 그와 마찬가지로 德을 밝혀서 좋아하고 높이게 되면 다른 사람의 기쁜 일과 좋은 일에 대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고 좋아하며, 다른 사람의 슬픈 일이나 나쁜 일에 대해 자신의 일처럼 슬퍼해 주고 걱정해 주게 된다. 주위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믿고 감싸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은 삶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확신은 자아를 확장시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게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은 德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면 인정을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된다. 그래서 德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게 된다.²⁰⁾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적 쾌락은 좋아하고 즐기면서 德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한 안타까움은 공자의 다음 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나는 德을 좋아하기를 色을 좋아하듯이 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²¹⁾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생명을 살리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남녀간의 性的인 즐거움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천부적 본성이 어떠한 영향에 의해 굴절되거나 왜곡됨이 없이 곧고 바르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德을 좋아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자의 실망처럼 아름다운 女色에 마음이 현혹되

19) 李基東, 『大學 中庸講說』,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0, 23쪽 참조.

20) 『論語』 「里仁」 第二十五章: 子曰德不孤必有隣.

21) 『論語』 「衛靈公」 第十一章: 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

■ 김기태 : 사회의 정의화 개인의 행복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고,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육체적 쾌락만 추구함으로써 강간, 매춘, 원조 교제, AIDS 등과 같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²²⁾ 천부적 본성을 상실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천부적인 본성대로 삶을 영위하면서 德을 좋아해야 한다. 맹자는 군자의 3가지 즐거움 중 하나로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으며 아래로 보아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²³⁾을 들었다.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남에게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양심에 어긋남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仁義禮智의 4가지 明德을 밝혀서 천부적 본성대로 삶을 영위해야만 가능하다. 천부적인 본성대로 삶을 영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천명대로 오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된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해 맹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仁義禮智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번지르르하게 얼굴에 나타나고 등에 가득하며 온 몸에 퍼져서 온 몸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달아 행해지게 된다.²⁴⁾

천부적 본성대로 삶을 영위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윤택해져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²⁵⁾ 그와 마찬가지로 明德을 밝혀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仁義禮智로 가득한 마음이 온몸으로 배어나와 자연스럽게 천부적인 본성을 잃고 괴롭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私欲에 의해 가려진 그들의 明德을 회복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여

22) 李相浩, 「유교의 悅樂에 관한 研究」, 『東洋哲學研究』 第49輯, 東洋哲學研究會, 2007, 125쪽 참조.

23) 『孟子』 「盡心章句上」 第二十章: 仰不愧於天俯不忤於人二樂也.

24) 『孟子』 「盡心章句上」 第二十一章: 君子所性仁義禮智根於心其生色也 睟然 見於面盎於背施於四體四體不言而喻.

25) 『大學』 傳六章: 富潤屋德潤身心廣體胖.

김기태 : 사회의 정의화 개인의 행복 ■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기서 유의할 점은 자신의 明德이다 회복한 후에 다른 사람의 明德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 자신의 明德을 회복한 만큼 다른 사람의 明德도 회복하도록 돕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남을 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진심으로 그를 따르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지위와 명예를 얻게 된다.²⁶⁾ 詩經 에서도덕을 좋아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다.

즐거우신 저 군자여 아름다운 德밭았네.
백성들이 흠족하니 하늘의 녹을 받으셨네 백성들을 도와주
고 인도하시니
하늘에서 녹을 거둬 내려주셨네.
녹과 복을 얻었으니 자손들이 천억이네.
근엄하고 온화하여 임금 노릇 잘하시고
허물 앓고 잊지 않아 옛 법도를 따르시네.
위엄 있고 거동 있고 말씀마다 조리 있네.
원망 앓고 미움 없이 백성들이 따르시니
받으신 복 한량없네. 온 천하의 버리 되네.
기강을 잡으시니 신하들이 즐겨하고
제후들과 경사들도 천자에게 잘 따르네.
임금 자리 잘 지키니 온 백성이 편안하네.²⁷⁾

이 詩를 통해 큰 德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命을 받고 하늘 이복을 내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

26) 『中庸』 第十七章:故大德必得其位必得其祿必得其名必得其壽

27) 『詩經』 「大雅」 生民之什假樂: 假樂君子顯顯命德宜民宜人受祿于天保佑 命之自天申之千祿百福子孫千億穆穆皇皇宜君宜王不愆不忘率由舊章 威儀抑抑德音秩秩無怨無惡率由群匹受福無疆四方之綱之綱之紀燕及朋友 百辟卿士媚于天子不解于位民之攸暨.

■ 김기태 : 사회의 정의와 개인의 행복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신의 밝은 덕을 밝힌 아름답고 즐거운 군자가 밝고 아름다운 德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 하며, 관리들을 인자하게 다스리면 하늘에서 그에 상응하는 緣과 명예를 받게 되고 하늘은 그를 보호하고 도와주게 된다. 나아가 하늘은 그를 천자로 거듭 임명하게 된다. 나아가 천부적 본성대로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오래살 수 있게 된다.²⁸⁾

‘考終命’은 천부적 본성대로 삶을 영위하지 못하여 비명횡사하거나 요절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天壽를 충실하게 누리다가 아름답게 마침을 말한다. 만물은 싹이 트고 자라고 결실을 거둔 후 떨어져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섭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聖}人是 자연스럽게 나아가갈 바와 물러날 바, 있어야 할 바와 없어야 할 바를 알아서 그 바를 잃지 않는다.²⁹⁾ 인간의 삶 또한 늙을 때 늙는 것이 최선의 삶이고 죽을 때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죽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그런데 육체적 행복만을 최고를 여기는 사람에게 있어 죽음은 자기 자신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절망한다. 그것은 언젠가 닥쳐올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괴로운 일이다. 퀴블러 로스(Elizabeth Kubler Ross)는 중병으로 죽음에 임해 있는 환자 200명 이상에게 인터뷰를 하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의 걱정, 공포, 희망에 대해서 조사하여 그들이 겪는 심리적 상태를 否認- 분노 - 거래(흥정) - 억울 - 受容의 5단계로 제시하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병이 치명적인 것이라고 통보받는 순간 그 사실을 무언가의 착오이며, 자기에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否認한다[1단계]. 그러나 끝내 부인할 수 없게 되면 주위의 모든 인물, 모든 사물에게 무작위로 분노를 터뜨린다[2단계]. 그러다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랄도 하겠다는 예를 들어 살 수만 있다면 ‘남은 생애

28) 『中庸』 第十七章: 故大德必得其位必得其祿必得其名必得其壽

29) 『周易』 「乾卦」文言傳: 進退存亡而不失其正者其唯聖}人乎.

김기태 : 사회의 정의화 개인의 행복 ■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를 바친다. 라는 식의 거래(흥정)을 하기 시작한다[3단계]. 그 과정에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욱 쇠약해지기 시작하면 이미 커다란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완전히 기세가 꺾이고 ‘抑鬱’한 시기가 찾아온다[4단계]. 이렇게 해서 투쟁은 끝나고 긴 여로 앞의 최후 휴식의 시간 즉,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억울함도 없고 분노도 느끼지 않고 주위 대상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집념을 떼어놓는 受容의 단계가 온다[5단계].³⁰⁾

사람의 몸은 원래 우주적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우주적 기운으로 움직이는 몸은 개체이면서 동시에 전체다. 물질적 제한성에서 보면 개체이지만, 우주적 움직임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이다. 우주적 움직임은 영원하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우주적 기운에 따르는 것이라면 그 움직임 자체가 바로 영원의 모습이다. 즉,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연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주적 삶의 차원에서 본다면,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우주적 삶이 바로 영생의 모습이라면 태어나서 사는 것도 영생이고 육체적 죽음도 영생의 입장에서 치르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천부적인 본성대로 삶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비명횡사하거나 요절하는 일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다.³¹⁾ 그러므로 삶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죽음을 잘 마무리하는 일은 五福중 하나로 누구나 원하는 일이다. 본심으로 사는 사람은 天壽를 누리고 때가 되었을 때 잘 살피서 육체적 죽음을 잘 마무리한다. 가족을 부르고 친지와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을 참석시킨 가운데 당부의 말을 하고 유언을 남긴 뒤에 조용히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다.³²⁾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天壽를 아름답게 마치는 考終命의 진정한 의미이다.

30)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인간학』,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0, 264~265쪽

31) 『書經』, 『周書』洪範: 六極一日凶短折.

32) 이기동, 『書經講說』,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7, 415쪽 참조.

■ 김기태 : 사회의 정의와 개인의 행복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IV. 중용적 조화와 행복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攸好德과 考終命을 통해 얻어지는 정신적인 행복과 壽, 富, 康寧의 추구를 통해 얻어지는 육체적인 행복이 중용적으로 조화되는 진정한 행복이 필요하게 된다. 유교에서는 이를 두고 ‘높고 밝음을 지극히 하되 中庸을 따른다.’³³⁾라고 한다. 德性은 본래 스스로 높고 밝은 것이지만 사사로운 욕심에 더럽혀지면 낮고 어둡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터럭만큼의 사사로운 욕심도 스스로 더럽힘이 없게 해야 그 높고 밝음을 끝까지 다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높고 밝음을 지극히 한다는 것 또한 마음의 본체가 본래 스스로 높고 밝아서 사사로운 욕심으로 더럽히지 않으면 지극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中庸을 따른다’는 것은 일을 처리함에 정밀하고微細하게 해서 터럭만큼의 지나침과 모자람의 잘못이 있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뜨리게 되면 폐단에 빠지게 되므로 중용적 조화가 필요하다. 『書經』 「周書」洪範편에서 강조하는 五福 또한 중용적 조화로서의 행복을 추구한다.

인간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두 요소는 몸과 마음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중용적 조화가 필요하다. 몸과 마음의 관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지나치게 기뻐하면 심장을 상하고,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면 비장을 상하고, 지나치게 근심하면 폐장을 상하고,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신장을 상한다. 반대로 마음의 수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모 콤플렉스에 지나치게 빠지게 되면 남과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 자기 비하,

33) 『中庸』 第二十七章: 故君子尊德性而道問學致廣大而盡精微極高明而道中 庸溫故而知新敦厚而崇禮.

김기태 : 사회의 정의화 개인의 행복 ■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대인 기피증, 우울증 등에 빠지기 쉽다.

몸과 관련되는 행복은 육체적 행복이고 마음과 관련되는 것은 정신적 행복이다. 나무에 비유하면 정신적 행복은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고 육체적 행복은 줄기나 가지에 해당된다. 五福 중 壽, 富, 康寧은 육체적 행복과 관련되는 내용이고 考終命, 攸好德은 정신적 행복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육체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의 관계는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정신적 행복만 중시하고 육체적 행복을 등한시하게 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육체적 욕구마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에 불안한 삶을 살 수 있다. 마치 뿌리는 튼튼하지만 줄기와 가지는 초라한 형상의 나무가 된다.

둘째, 육체적 행복만 중시하고 정신적 행복을 등한시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없다. 마치 줄기와 가지는 무성하고 아름다운 꽃이라 하더라도 뿌리를 잘라버리면 그 아름다움이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시들게 되는 원리와 같다.

셋째, 정신적 행복도 등한시하고 육체적 행복도 등한시하게 되면 가장 불행한 삶으로 초라하고 불품없는 나무의 꼴이 된다.

넷째,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뿌리에 해당되는 정신적 행복을 중시하면서 줄기와 가지에 해당되는 육체적 행복도 중시할 줄 아는 삶이다.

자신의 아름다운 육체를 가꾸고 보존하여 육체적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생각이 팽배하게 된다. 물질 지향적이고, 감각적이며 육체적인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행복보다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육체적 행복을 더욱 중시하고 마음 가꾸기를 소홀히 하고 몸 가꾸기에 주력한다. 마음보다 몸을 중시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독립성과 개별성을 강조하게 된다. 왜냐하면 몸은 나와 남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중 자신의 몸을 더 중시하게 된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고, 행복한 삶도 물질적 측면이 구비되어야 된

■ 김기태 : 사회의 정의와 개인의 행복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다. 그런데 물질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해야 한다. 좋은 것은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고, 싫은 것은 서로 회피하려고 경쟁을 한다. 경쟁이 지나치게 되면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극단적 이기주의로 치달게 되고 항상 피곤하고 긴장된 삶을 영위해야 한다.

그런데 육체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 모두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중시해야 할 것은 정신적인 행복이다. 그러한 근거는 다음 내용에서 엿볼 수 있다.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며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몸을 닦는 것이 그 마음을 바로 잡는데 있음을 일컫는 것이다.³⁴⁾

志가 氣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10분에 9할이요, 氣가 志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10분의 1할이다.³⁵⁾

마음은 육체를 조정하는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의 주인은 마음이다. 마음이 육체를 조정하는 작용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물체를 보아도보이지 않게 되며, 들어도 들리지 않게 되며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모르게 된다. 육체적인 감각 기관은 마음의 작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와 반대로 몸이 따뜻하고 머리가 차가우면 기운이 있게 되고 차분한 마음이 되지만 몸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뜨거워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차분한 마음이 사라지고 쉽게 흥분을 하게 되며 성급한 마음이 된다. 성급한 마음이 되면 생각이 짧아지고 자기 밖에 모르고 이기적이며 욕심이 생기게 된다.³⁶⁾ 마음이

34) 『大學』 傳七章: 心不在焉視而不見聽而不聞食而不知其味此謂修身在正其心.

35) 『孟子』 「公孫丑章句上」 第二章朱子註: 程子曰志動氣者什九氣動志者什一.

김기태 : 사회의 정의화 개인의 행복 ■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몸을 움직이도록 하는 경우가 몸이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는 경우보다 더 크다. 그와 마찬가지로志가 氣를 움직이도록 하는 경우가 氣가 志를 움직이도록 하는 경우보다 비교적 많다. 그러므로 사람의 온전한 삶은 志를 온전하게 간직하면서도 동시에 氣를 잘 보존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孟子는 志를 잘 간직하면서도 동시에 氣를 난폭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교에서는 마음의 궁극적인 밑바탕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한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보며,³⁷⁾ 자기의 本性을 회복하여 본래 모습대로 바로 잡은 후에 다른 사람의 本性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게 된다.³⁸⁾ 따라서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생겨 자연스럽게 돕게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러한 사랑은 아무리 많이 베풀어 주어도 고갈되지 않으며 주면 줄수록 더욱 더 커지고 흐뭇하게 만든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게 된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대의 치열한 경쟁 사회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여기는 마음은 필요하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 또한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유교에서는 그러한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천부적인 착한 본성이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믿고 있으며, 仁의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仁者는 다른 사람의 본성도 자신의 본성과 같다는 것을 體認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부자가 되어도 하늘에서 내린 富를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사

36) 김종수, 『따뜻하면 살고 차가워지면 죽는다』, 정신세계원, 2009, 121~122쪽 참조.

37) 『詩經』 「小雅」節南山之什巧言: 他人有心予忖度之.

38) 『中庸』 第一章朱子註: 聖人所以盡己之性則能盡人之性由其同一原故也.

■ 김기태 : 사회의 정의와 개인의 행복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람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알며, 가난한사람들을 위해서 富를 재분배할 줄 안다. 남을 단지 나의 삶을 피곤하게하고 부유한 삶을 위협하는 쫓겨러운 경쟁의 상대로만 보지 않고 나와同苦同樂하고 共存共生하는 삶의 동반자로 여기기 때문이다.³⁹⁾

仁者는 자신이 서고자 하면 남도 서고 싶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미루어 남이 먼저 서도록 배려하고⁴⁰⁾,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남 또한 하기 싫은 것을 헤아릴 줄 알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⁴¹⁾따라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싫어하지 않게 되고, 그의 취함을 싫어하지 않게 된다. 남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유교의 근본적 취지는 다음의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군자는 급박한 사람을 두루 돌봐 주지 부유한 사람을 계속 돌봐 주지는 아니한다.⁴²⁾

나는 들으니, ‘나라를 소유하거나 집을 소유한 자는 백성들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못한 것에 대해 걱정하며, 가난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하였다. 대체로 고르면 가난함이 없고, 和하면 적음이 없고, 편안하면 기울어짐이 없는 것이다.⁴³⁾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행복한 사회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사회이다. 여기에 능력이 뛰어나 앞서가는 부자와 그

39) 李相浩, 『儒敎의 생명관의 道德敎育의 含意』, 『儒敎思想研究』 第31輯, 韓國儒敎學會, 2009, 340쪽 引用

40) 『論語』 「雍也」 第二十八章: 夫仁者己欲立而立人己欲達而達人.

41) 『論語』 「衛靈公」 第二十三章: 己所不欲勿施於人

42) 『論語』 「雍也」 第三章: 君子周急不繼富.

43) 『論語』 「季氏」 第三章: 丘也聞有國有家者不患寡而患不均不患貧而患不安 蓋均無貧和無寡安無傾.

김기태 : 사회의 정의화 개인의 행복 ■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렇지 못한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불공정한 거래와 불법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엄중히 문책하고 견제해야 하지만, 공정한 거래를 하면서 정당한 부를 축적하는 부자를 계속하여 도와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능력이 뒤쳐진 가난한 사람 즉, 부양할 자식이 없는 노인, 부모 없는 고아,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 등은 보살펴 주어야 한다. 이들을 보살핀 결과 그들이 부유해지면 더 이상 보살핌을 계속하지는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정부에서 외면하게 되면 그들은 절망하게 되고, 공동체 구성원이 된 것에 대해 원망과 한탄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가난한 사람이 사회 제도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 주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상인과 다른 신체적 조건을 가진 장애인 처럼 정상적인 경쟁에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 가난이 자신의 탓만이 아닌 사람들, 고아와 노인들을 돌보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 확산되면 공동체 일원이 된 것에 대해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된다.

사람들이 갈구하는 五福또한 천부적 자연 본성대로 삶을 영위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천부적 본성대로 삶을 영위하게 되면 生理에 맞기 때문에 自彊不息할 수 있게 되고 自強不息하게 되면 건강을 유지하여 장수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천부적 본성대로 삶을 영위하게 되면 외부의 상황이 바뀌더라도 매사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며, 天理에 합치된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스스로 많은 福을 구하게 된다.⁴⁴⁾ 자연 현상에 사계절이 있듯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또한 우주적 기운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하늘의 작용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삶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게 된다. 천부적인 자연 본성에 일치되는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44) 『詩經』 「大雅」文王: 永言配命自求多福.

■ 김기태 : 사회의 정의와 개인의 행복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친밀한 곳에서 소원한 곳으로 仁을 실현하게 된다. 仁을 실현하게 되면 나와 남을 구분하려는 마음을 이겨내고 자연스럽게 남과 하나가 되고, 만물과 하나가 되며, 하늘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로서의 '나'만 존재하게 되어 다른 사람을 닮거나 하늘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⁴⁵⁾ 天人合一의 삶이 실현된 모습은 다음 내용에서 엿볼 수 있다.

무릇 大人은 天地와 더불어 그 德을 합하며, 日月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며, 四時와 더불어 그 차례지킴이 같으며, 鬼神과 더불어 그 吉凶을 하나로 하여, 하늘에 앞서 해도 하늘이 어기지 아니하며, 하늘을 뒤따라 해도 하늘의 때를 받드나니, 하늘도 또한 어기지 아니할진대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며 하물며 귀신에 있어서라!⁴⁶⁾

하늘땅과 만물은 본래 나와 한 몸이니, 나의 마음이 바르면 곧 하늘땅의 마음도 바르게 될 것이고, 나의 氣가 순조로우면 하늘과 땅의 氣도 또한 순조롭게 될 것이다.⁴⁷⁾

우주가 완전하고 무한한 것처럼 인간 또한 천부적으로 완전하고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잘 간직하기만 하면 天人合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하늘에 앞서 해도 하늘이 어기지 아니하며, 하늘을 뒤따라 해도 하늘의 때를 받든다.'는 것은 天人合一

45) 『論語』 「憲問」 第三十八章: 子曰不怨天不尤人下學而上達知我者其天乎.

46) 『周易』 「乾卦」文言傳: 夫大人者與天地合其德與日月合其明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先天而天弗違後天而奉天時天且弗違而況於人乎況於鬼神乎.

47) 『中庸』 第一章 朱子註: 蓋天地萬物本吾一體吾之心正則天地之心亦正矣吾之氣順天地之氣亦順矣.

김기태 : 사회의 정의화 개인의 행복 ■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的 삶을 영위한다는 것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진리에 맞게 대처하는 삶을 의미한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하늘의 운행에 맞춰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매며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을 하듯이 가야 할 때 가고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며 자라야 할 때 자라고 늙고 죽어야 할 때는 그 시기에 맞게 죽는 삶의 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의해 삶을 영위하게 되면 하늘의 작용과 일체가 되어 전체의 흐름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에 ‘마음이하고자 하는 바를 따르지만 법도에 넘지 않았다.’는 孔子처럼 행동에 어긋남이 없게 되고, 삶 자체가 진리가 되므로 능히 五福을 향유할 수 있고 절대 자유를 누리게 된다.

V. 결론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행복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느껴질 수 있듯이 사고방식의 전환을 통해 얼마든지 행복해 질 수 있다. 남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사 긍정적인 태도와 생각을 갖고 주어진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누구나 행복해 질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죽음을 잊기 위해 육체적 쾌락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담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天壽를 아름답게 마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나와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의 요긴한 조건이 된다. 이 관계가 잘못되어서 속이 억압되고 속을

■ 김기태 : 사회의 정의와 개인의 행복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끓이게 되면 개인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한 현상이 심해지면 건강도 해칠 수 있게 되어 수명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반대로 천부적 본성대로 진리를 구현하고 明德을 밝혀 본래의 모습대로 바른 삶을 살게 되면 옹덩이의 물이 넘쳐 다른 곳으로 저절로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이 뿔어나가게 된다. 또한 그 모습이 행복하고 참된 삶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행복하고 참된 삶을 살게 된다. 사회 전체의 대인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면서 남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고, 五福을 누리면서 삶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오늘의 사회는 물량적 극대화를 위한 사회구조로 되어 있을 뿐 삶의 행복을 위한 구조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행복을 위한 조건을 가정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가정은 삶의 기본적 형태이다. 가족의 혈연을 지속시키는 곳이며 행복된 삶을 사랑으로써 창조하는 곳이다. 물론 가정은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로 넘어 오면서 그 의미가 변화되고 있기에 가족윤리의 정립이 달라지고 있다. 수직적 명령계통의 복종의 윤리에서 합리적 사고에 의한 개성존중의 가정윤리로 바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력의 상품가치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가정운영에 의해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능력본위의 서열이 매겨지는 현상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주의 심성을 갖고 있지만 슬픔을 같이하는 눈물, 기쁨을 같이하는 웃음, 손익을 함께 하는 정의감,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려는 양심 또한 사람답게 사려고 하는 도덕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여 행복하게 살도록 주선하는 곳이 일차적으로 가정이다. 왜냐하면 사람답게 됨의 씨앗이 가정에서 움트게 되고 가정교육에 의해서 바르게 훈련되기 때문이다. 가정의 행복은 가족 서로 간의 행복이며 가정의 행복이 넓어졌을 때 사회행복이 성숙되는

김기태 : 사회의 정의화 개인의 행복 ■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것이다.

사실 행복은 개인이나 국가에 있어서 교육에 의해 조성된다. 특히 가정의 기초교육은 평생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오늘날의 가정교육에선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은 교육대상의 하나이지 가정교육의 이념이나 목표가 아니다. 농경시대의 가정은 소집단의 위계질서가 요구되었기에 장남 본위의 가부장 제도가 있었고, 족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에 알맞은 규범이 요구되었다. 농업 자체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협동과 노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인성을 전제로 한 仁 義 禮 智의 전통규범이 제정된 것이다. 산업사회는 기술과 능력 지식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인륜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덕목이 나와야 할 것이고 물질적 생활에 의한 소유개념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이 제기 되어야 한다. 이러한 덕목을 움트게 하는 가정교육에서 그에 알맞은 교육의 지표가 세워져야 한다. 가정교육의 첫 단계는 합리성에 바탕을 둔 공동의식을 길러야 하며 거짓 교육이 아닌 진실성을 가르쳐야 한다.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교육이 아닌 사람의 본성을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하며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특히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사회생활에서 자기의 행복을 높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복에도 기여하는 의무감에서 정당성에 의한 정의감을 발휘하고 더불어 삶에 기여하는 양보의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 김기태 : 사회의 정의와 개인의 행복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인간학』,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0.
- 강희복, 「退溪의 幸福論과 오늘의 文化」, 『韓國思想과 文化』 제30집, 한국사상 문화학회, 2005, 239~267쪽.
- 김기현, 「조선 선비들의 행복론」, 『선비문화』 24호, 남명학회, 2013, 38~50쪽
- 김대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서양고전학연구』 제15집, 한국서양고전학회, 2000, 47~72쪽.
- 김도형, 「'신성한 것(theiton)'으로서의 '잘-삶(eudaimonia)'에 대하여-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중심으로-」, 『가톨릭철학』 제22호, 한국가톨릭 철학회, 2014, 5~40쪽.
- 김봉규, 「칸트윤리학에 있어서의 행복론 연구」, 『철학과 현실』 제29호, 철학문화연구소, 1996, 306~309쪽.
- 김종수, 『따뜻하면 살고 차가워지면 죽는다』, 정신세계원, 2009.
- 김중규, 「버트런드 러셀의 윤리적 주관주의, 그 이론적 배경과 영향」, 『철학논총』 제77집, 새한철학회, 2014, 105~123쪽.
- 李相浩, 「五福 개념을 통해 본 유교의 행복론」, 『동양철학연구』 제60집, 동양철학연구회, 2009, 133~161쪽.
- 박규리,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에서 설하는 지혜와 자비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종교연구』 제74집 4호, 한국종교학회, 2014, 137~166쪽.
- 박선목,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동서양의 행복론」, 『코기토』 제55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0, 303~339쪽.
- 朴洪植, 「『논어』의 행복론」, 『儒敎文化研究』 제17집, 성균관대

김기태 : 사회의 정의와 개인의 행복 ■
동서양의 행복론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10, 285~310쪽.

윤천근, 「조화와 순응의 행복론」, 『동서철학연구』 제56호, 한국
동서철학회 논문집, 2010, 319~339쪽.

李基東, 『大學..中庸講說』,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0.

李相浩, 「유교의 悅樂에 관한 研究」, 『東洋哲學研究』 第49輯,
東洋哲學研究會, 2007.

李相浩, 「儒敎의 생명관의 道德敎育의 含意」, 『儒敎思想研究』 第
31輯, 韓國儒敎學會, 2009.

이호영, 「동양사상의 행복론-공자, 양주 그리고 대진의 개인적
성향을 중심으로」, 『동양사상』 제11집, 경북대학교 동서
사상연구소, 2011, 79~100쪽.

임헌규, 「이로움과 당위」, 『東方學』 제26집, 한서대학교 동양고
전연구소, 2013, 101~130쪽.

임헌규, 「형이상학과 중용」, 『東洋古典研究』 제52집, 동양고전학
회, 2013, 7~31쪽.

정수복, 「포스트모던 행복론」, 『환경과 생명』 통권 27호, 환경과
생명, 2001, 151~162쪽.

정인화, 「인간은 왜 불행한가?—B.러셀 『행복론』에 대한 성찰」,
『인문학연구』 제9집, 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347~363쪽.